

kiri Weekly

2014.7.14 제291호

포커스

한국과 일본 노인 삶의 질과 노인복지에 관한 소고

글로벌 이슈

미국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증가와 시사점

중국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현황 및 전망

한·중 정상회담 경제·금융 분야 성과에 대한 중국의 평가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한국과 일본 노인 삶의 질과 노인복지에 관한 소고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 김동겸 선임연구원

요약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노인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하는 노인복지문제가 최대의 사회적 현안 과제로 부각될 것임. 일본은 연금제도 성숙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세대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96.4%(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약 160만 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34.8%(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45만 원)에 불과함. 또한 일본 고령자세대의 소득원 중 약 74%가 연금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본의 고령자세대는 연금제도에 의해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이와 달리 우리나라 고령자 대부분은 노후소득보장체계 미흡 등으로 생계를 위한 일용단순직,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음. 게다가 노인들이 편안하게 소일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공간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고령자의 국민연금 수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취약계층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고령자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차원에서 일본 동경의 스가모(巣鴨)거리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층 노인들을 위한 한국형 스가모 거리”가 조성될 필요가 있음. 결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소득보장, 사회환경 등 노인복지체계 개선에 정부, 지자체,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국제노인인권기구(Help Age International)가 발표한 노인 삶 지표(글로벌 에이지워치 인덱스: Global AgeWatch Index)에 의하면 91개 조사대상국 중 일본 노인 삶의 질은 10위(83.1점)인 반면, 한국 노인 삶의 질은 67위(39.9점)에 불과함.

● 소득보장, 건강상태, 고용수준, 사회환경 등을 통해 노인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4개 분야 모두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소득보장은 63(한국 90위, 일본 27위), 건강상태는 3(한국 8위, 일본 5위), 고용수준은 9(한국 19위, 일본 10위), 사회환경은 16(한국 35위, 일본 19위) 단계의 격차를 보임.

〈표 1〉 한국과 일본 노인 삶의 질

구분	소득보장	건강상태	고용수준	사회환경	합계
한국	90위 (8.7점)	8위 (74.5점)	19위 (56.3점)	35위 (68.3점)	67위 (39.9점)
일본	27위 (80.7점)	5위 (76.9점)	10위 (66.2점)	19위 (77.2점)	10위 (83.1점)

자료: HelpAge(2013), Global AgeWatch Index 2013: Insight report.

■ 또한 소득보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 고령자(65세 이상노인)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2.9%만이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배우자 고령자(27.6%)가 무배우자 고령자(15.1%)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표 2〉 65세 이상 노인 삶의 만족도

(단위: %)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고령자(65세 이상)	22.9	43.5	33.6
유배우 고령자	27.6	45.5	27.0
무배우 고령자	15.1	40.3	44.6

주: 해당비율은 삶의 만족도 질문에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3), 고령자통계.

■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소득보장, 고용수준, 사회환경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 그 이유는 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가 삼각형에서 역삼각형으로 전환되어 가고 이에 따른 노인 삶의 질 문제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일본의 고령화 추세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노인 삶의 질을 일본 과 대비하여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살펴봄.

■ 먼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고령자세대의 국민연금 수급률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사적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함.

- 일본은 연금제도 성숙으로 국민연금 수급률이 고령자세대의 경우 96.4%에 이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31.4%에 불과하여 수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¹⁾

〈표 3〉 한국과 일본의 공적연금 수급률

구분	한국	일본
공적연금 수급률(65세 이상)	34.8%(국민연금 수급률 31.2%)	96.4%

- 주: 1) 공적연금 수급률 = (공적연금수급자수 / 65세 이상 인구) × 100
 2)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세대(2012년) 기준, 한국은 65세 이상 전체 고령자 인구(2012년)기준임.
 3) 한국은 군인연금 제외, 일본은 기초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 대상임.

자료: 통계청(2013), 고령자통계.

- 일본 고령자세대의 평균소득(303.9만 엔)중 약 74%가 연금소득으로 노후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4〉 일본 고령자 세대의 소득 구성 추이

연도	평균소득 (1000엔)	구성비율 (%)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사회보장급부금	사적연금 등
1975년	1,147	56.0	9.7	26.2	-	-
1985년	2,393	39.6	6.8	47.2	3.9	2.5
1995년	3,169	24.8	8.0	62.7	0.9	3.7
2005년	3,019	18.0	5.2	70.2	0.8	5.7
2012년	3,039	19.5	5.8	69.1	0.8	4.8

- 주: 1)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 등.
 2) 사적연금 등: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자료: 山崎 泰彦(2014), 日本の公的年金 現状と 課題, 한국연금학회 국제학술세미나자료집, p. 28.

- 반면 우리나라 고령자의 63.6%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으로 노후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이중 53.1%는 근로소득임.
 - 즉, 노후생활비 마련이 근로소득(53.1%), 연금 및 퇴직급여(24.9%) 순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에 비해 노후생활에서 연금소득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2014년 기준)은 약 45만 원에 불과한 반면 일본의 국민연금(기초연금 5.5만 엔 + 후생연금 10.6만 엔) 월평균수령액은 약 160만 원(161,000엔)에 이르고 있음.

〈표 5〉 한국 고령자(60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원천(2013년)

(단위: %)

본인 및 배우자 부담	근로소득	재산소득	연금	예금	자녀 또는 친척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사업소득		퇴직급여				
63.6	53.1	12.2	24.9	9.8	28.8	7.6	0.1

주: 통계청 사회조사는 전국 약 17,664 표본가구 내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이중 19.6%가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2013), 2013년 사회조사.

■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단순 노무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이 보다 요구됨.

- 노후소득보장제도 미비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남성기준)은 41.6%로 일본의 28.7%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대부분은 단순노무직이나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음.²⁾

〈표 6〉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남성	일본	32.9	31.2	30.0	29.0	29.4	29.2	29.7	29.7	29.4	28.8	28.4	28.7
	한국	41.2	42.7	39.8	41.4	41.2	41.9	42.9	41.9	41.5	40.6	40.6	41.6
	OECD	16.5	16.3	16.3	16.1	16.6	16.8	17.1	17.6	17.6	17.8	18.0	17.9
여성	일본	13.8	13.2	13.0	13.0	12.7	12.9	13.0	13.0	13.1	16.2	13.2	13.4
	한국	22.9	23.0	21.5	22.2	22.5	22.7	23.3	22.9	22.2	21.7	21.8	23.0
	OECD	7.0	7.1	7.2	7.2	7.4	7.6	7.9	8.2	8.4	9.0	8.7	8.8

자료: OECD(2013), Labour Data.

■ 또한, 고령자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고령자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일본 동경의 스가모(巢鴨)³⁾를 벤치마킹하여 정부, 지자체, 시민 등의 협조를 통해 “고령층 노인들을 위한 한국형 스가모 거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고용정보원(2013)의 조사에 따르면, 65~79세 노인의 직업 중 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은 각각 34.4%와 36.6%에 이르고 있음. 한편, 55~79세를 대상으로 할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은 27.5%로 가장 많음.
 3) 스가모 거리는 800m의 거리에 200여 개 상점이 들어선 노인들만의 거리로 모든 상점(식당, 약국 등)이 노인들의 눈높이 맞추어져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 소일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 거리는 원래 스가모 형무소 등 혐오시설이 있었던 자리였으나 노인복지 차원에서 일본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조성되었음. 특히, 유럽에서 노인복지를 연구하는 학자가 논문을 쓰기 위해 방문할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연 800만 명)로 변모함.

- 우리나라 고령자(65세 이상)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소득 및 건강문제 다음으로 소일거리 없음 (15.0%), 외로움(14.9%), 노인복지시설 부족(11.2%) 순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외로움 등을 달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함.
 -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노인들의 쉼터 성격만을 지닌 탑골공원과 스가모는 근본적 차이가 존재함.

〈그림 1〉 일본 동경의 스가모 거리



- 결국, 노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소득보장, 사회환경 등 노인복지 체계의 개선에 정부, 지자체,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kiri](#)